

●일일스터디\_표준안

윤선민 / 중앙일보 / 2026.06.08.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선거 결과 국민 경고...투표용지 사태, 모범적 민주국가 망가뜨려”	정치	-
2	경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 본격화...선거 사무원 등 조사	사회	-

(1)기사/뉴스요약

“선거 결과 국민 경고...투표용지 사태, 모범적 민주국가 망가뜨려”

[앵커]

집권 2년 차에 들어선 이재명 대통령이 각종 현안과 국정 방향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먼저, 지방선거 결과는 자신과 정권을 향한 국민의 경고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국정 기조는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해 모범적 민주국가를 한순간에 망가뜨렸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첫 소식,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4대 국정 목표를 제시한 이재명 대통령.

먼저 6·3 지방선거 결과는 자신과 정권에 대한 경고라며, 국정 기조는 이어가되 더 겸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선관위를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부정선거 주장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이 야당이었을 때와 집권한 뒤로는 달라야 한다고 하며 뼈 있는 말도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최대한 많이 모아 포용과 통합을 잘해야 한다, 과격한 표현이나 색채 구분, 사상 검열 등 모욕해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시간 가까이 마라톤 기자회견을 이어간 이 대통령은 국민 임명식 당시와 같은 통합 넥타이를 착용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겠다 의미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핵심: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 결과는 자신과 정권을 향한 국민의 경고라고 평가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는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선관위를 강하게 질책했다.**

(2)기사/뉴스요약

경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 본격화...선거 사무원 등 조사

[앵커]

투표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인쇄업체와 선거 사무원 등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선관위원장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도 조사했습니다.

보도에 이도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김00/서울 송파구/지난 3일/음성변조 : "이제 투표는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선거 당일,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관위 간부들이 경찰에 고발됐고, 닷새만인 오늘(8일), 고발인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김순환/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 "세상에 투표하러 가서 투표용지가 없으면 그게 뭐니까?"]

거론되는 혐의는 형법상 직무 유기와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

단순 무능이나, 형사처벌 대상이냐는 '고의성' 입증에 가를 전망입니다.

선관위가 투표용지 예산은 유권자의 110%로, 하지만 실제 인쇄는 50% 수준으로 맞춘 경위도 규명돼야 합니다.

경찰은 투표용지 인쇄 업체를 특정해 선관위 발주 물량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쇄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선관위 주문은) 거의 1년 전? 준비는 되게 오래전부터 하는 거예요. 발주받을 때 제 기억에 몇 명이라는 게 명시가 돼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선거 당일엔 용지 부족에 즉각 대응했다는 선관위 설명과 달리, 송파구선관위는 이미 당일 오전 용지 부족 가능성을 인지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선거 사무원들의 당일 메신저 대화 등을 확보해 살펴보는 한편, 조만간 검찰과 함께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진상 규명에 나설 방침입니다.

**핵심: 선관위가 잠실 투표소에서 철수하면서 유권자들 개인정보가 담긴 선거 물품을 그대로 두고가면서 불신을 야기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의 빌미가 되고 있다.**

●일일키워드

순번	키워드	설명	출처
1	바스켓 예매	여러 종목을 하나의 바구니에 담듯, 10개 이상의 서로 다른 종목을 묶어 한꺼번에 주문을 내는 일괄 매매 방식을 뜻한다.	매일경제
2	아피아 로드맵	유럽중앙은행이 제시한 차세대 금융 인프라 전략	매일경제

## ●일일스터디\_표준안

윤선민 / 중앙일보 / 2026.06.08.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투표용지 부족' 항의 집회 닷새째...올림픽공원 입주사도 발 묶여	사회	-
2	더 늘어난 '용지 부족' 투표소...50% 미만도 최소 2곳	정치	-

### (1)기사/뉴스요약

#### '투표용지 부족' 항의 집회 닷새째...올림픽공원 입주사도 발 묶여

[앵커]

서울 잠실 개표소에선 참정권 훼손에 항의하고 재선거를 요구하는 집회가 오늘(9일)도 이어졌습니다. 부정선거나 수개표 주장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황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로 닷새째,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기 위해 잠실 개표소 앞으로 모인 참가자들, 지난 주말 최대 3만 명까지 늘었던 인원은 오늘 수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경찰 비공식 추산 오전 7시엔 2백 명 수준으로 감소했다가, 11시 반 380명, 오후 들어선 수천 명으로 다시 서서히 증가했습니다.

재선거 요구가 중심이었던 주말 집회와 달리,

오늘은 부정선거에 이어, 당일투표와 수개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참가자 간 충돌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진보 단체 소속으로 의심받은 여성이 쫓겨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도시락 먹고 있는데 대진연이라고 쫓아냈어요."]

어제(8일) 중국인으로 오인돼 시비에 휘말렸던 대만 기자들은 국기를 들고 취재에 나서야 했습니다.

출입 통제가 이어지면서 경기장 입주사 직원들의 출퇴근도 막힌 상황.

늦은 오후 직원 18명이 사무용품을 챙기기 위해 경기장을 찾았지만, 참가자들이 신분 확인을 요구하면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떤 곳인데! 저걸 열어달라고!"]

주최 측 없는 시민들의 자발적 집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은 현장 경비를 이어가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핵심: 서울 잠실 개표소에선 참정권 훼손에 항의하고 재선거를 요구하는 집회가 닷새째 이어지고 있다.**

## (2)기사/뉴스요약

### 더 늘어난 '용지 부족' 투표소...50% 미만도 최소 2곳

#### [앵커]

선관위가 부실 선거 이후 사후 대처까지 부실하게 하며,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투표지가 부족했던 투표소가 아흔 한 곳으로, 또다시 늘어났습니다.

또 투표소 중 최소 두 곳에선 선거인 수의 50%란 지침보다도 투표지를 적게 준비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여소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투표를 마쳤어야 하는 저녁 6시가 넘었지만 투표소엔 여전히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기표를 해야할 용지가 모자라 대기 중인 유권자들입니다.

이처럼 초유의 투표지 부족 사태가 일어났던 투표소, 선관위는 어젯밤(8일) 전국 91곳이라고 새로 발표했습니다.

지난 5일 전국 50곳이라더니, 사흘 만에 41곳, 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투표지가 부족해 짧게는 4~5분에서 길게는 100분 이상 투표가 중단됐던 투표소 숫자도, 당일 14곳에서, 5일엔 22곳으로, 어젯밤엔 26곳으로 발표 때마다 늘고 있습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이유, 인쇄 수량 하한 지침을 '선거인 수의 50%'로 낮춘 게 결정적 원인으로 꼽히는데, 이마저도 지키지 않은 투표소가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송파구 투표소 한 곳과 강남구 투표소 한 곳은 준비했던 투표용지, 선거인 수의 43~45%에 불과했습니다.

300~400장 정도가 부족했던 겁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미리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투표용지 인쇄량을 정하는 건 지난해 말 등록 선거인 수가 기준인데, 실제 선거는 6개월 뒤 치러지다 보니 그사이 변한 인구수를 반영 못 했던 게 선관위 설명입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용지 숫자와 실제 선거인 수 비교를 미처 못한 것 같으며, 세심하게 못 보고 놓친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핵심: 투표지가 부족했던 투표소가 아흔 한 곳으로, 또다시 늘어났다.**

## ●일일키워드

순번	키워드	설명	출처
1	칩렛	반도체 칩을 기능별로 여러 개의 작은 칩으로 나눠 설계한 뒤 이를 완성된 시스템으로 조립해 동작하게 하는 방식을 말한다.	매일경제
2	소버 큐리어스	술에 취하지 않는다는 소버와 궁금함을 의미하는 큐리어스를 합친 표현이다.	매일경제

## ●일일스터디\_표준안

윤선민 / 중앙일보 / 2026.06.10.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선관위, 개표 결과 잘못 입력...1,104명 민의 증발	사회	-
2	잠실4동, 60% 인쇄하고선 배분 실패...선관위 진상규명위 가동	정치	-

### (1)기사/뉴스요약

#### 선관위, 개표 결과 잘못 입력...1,104명 민의 증발

[앵커]

이번 선거에서 투표지 부족뿐만 아니라, 있어선 안 될 일이 또 있었던 사실이 저희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개표 결과를 전산에 잘못 입력한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전북교육감 선거에서 벌어진 입력 잘못으로 천백 명이 넘는 유권자들의 표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서윤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주시 완산구 선관위의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 결괏값의 입력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지역의 선관위가 중화산1동 3투표소의 개표 결과를 같은 동 1투표소에 중복 입력한 겁니다.

선관위는 각 투표소의 전반적인 상황을 기록하는 투표록의 속지에 투표소 이름을 잘못 표기했다고 설명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 겁니다.

최종 전산 입력을 앞두고도 오류를 걸러내야 했지만, 역시 놓쳤습니다.

결국 선거 다음 날 아침에야 잘못 입력한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선관위는 개표가 마무리되며 전산 입력이 차단돼 수정할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전북 교육감 선거는 1투표소 유권자 1,104명의 선택은 누락되고, 3투표소 결괏값만 두 번 반영된 채 끝났습니다.

선관위는 결과를 제대로 입력했어도 1, 2위 후보 간 득표 차이가 19표 더 좁혀질 뿐이라며,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선거가 끝난 지 일주일도 지나도록 개표 오류에 대해선 후보 쪽에 통보도 하지 않았습  
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이어 개표 결과 입력 오류까지.

선관위를 향한 불신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핵심: 전주시 완산구 선관위의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 결괏값의 입력 오류가 발생했다.**

## (2)기사/뉴스요약

### 잠실4동, 60% 인쇄하고선 배분 실패...선관위 진상규명위 가동

[앵커]

선관위는 지금까지 투표지를 적게 인쇄한 게 부족 사태의 원인이라고 설명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조차 정확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투표지가 가장 많이 부족했던 서울 송파구 일부 지역에선, 투표지 배분에 실패한 게 진짜 이유로 확인됐습니다.

이 내용은 이지윤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투표용지 인쇄 축소를 결정한 지난 4월 서울 송파구선관위의 내부 문건입니다.

중앙선관위 지침대로 선거인 수의 50%만 인쇄하라고 정하면서, 사전투표율이 낮은 잠실3동과 4동은 60%로, 더 많이 찍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전투표율이 낮아 본 투표율은 높을 가능성에 대비했던 겁니다.

선거 당일 어땠을까?

잠실4동 5, 6, 7투표소에선 용지가 부족해 줄이 늘어섰고, 특히 7투표소에선 1시간 이상, 세 차례나 투표가 중단됐습니다.

잠실4동 7투표소, 선거인 수의 60%를 인쇄했다면 1,921장이 배부됐어야 하지만, 실제 배분된 투표용지는 1,400장에 그쳤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500장 넘게 부족했던 겁니다.

하지만, 서울 송파구 전체에선 사용하지 않고 남은 투표용지가 4만 2천 장이 넘었습니다.

적게 찍은 것도 문제지만 주먹구구로 배분에 실패했던 겁니다.

선관위 자체 진상규명위원회는 오늘(10일) 첫 회의를 열었는데, 투표용지 부족 대응 매뉴얼이 없다는 게 바로 드러났습니다.

[조현욱/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 : "선거관리위원회의 상세 대응 현황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시 대응 매뉴얼이 부존재하였음을 확인하였고..."]

투표용지 인쇄를 줄인 이유, 결정권자, 부족 사태의 원인 등으로 조사 대상도 정했는데, 활동 기한은 열흘 뿐이고 강제 조사 권한도 없습니다.

선관위는 '소쿠리 투표', '채용 비리' 때도 자체 개혁을 외쳤지만, 실제 이행은 미흡해 이번엔 가능하겠느냐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핵심: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을 인쇄량 부족으로 설명한 것과 달리 투표지 배분에 실패한 게 투표용지 부족의 진짜 이유로 드러났다.**

● 일일키워드

순번	키워드	설명	출처
1	민의	국민의 뜻 또는 국민의 의사를 뜻하는 명사	낱말사전
2	-		

## ●일일스터디\_표준안

윤선민 / 중앙일보 / 2026.06.11.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전북만이 아니었다...경기 교육감도 개표 입력 누락	사회	-
2	'캡틴' 손흥민, 4번째 월드컵에 인생을 건다	세계	-

### (1)기사/뉴스요약

#### 전북만이 아니었다...경기 교육감도 개표 입력 누락

[앵커]

선거와 관련해 정말 걱정했던 문제가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북 말고도 개표 결과를 전산에 잘못 입력한 사례가 하루 만에 또 확인됐습니다.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한 지역의 개표 결과를 누락하거나, 각 후보자의 표를 바꿔 입력한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단독 보도, 박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선관위가 운영하는 선거 통계 시스템입니다.

6.3 지방선거 당일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의 경기도지사 투표자 수는 만 6천여 명.

그런데 경기도 교육감 투표자 수는 만 5천여 명으로 429표가 차이가 납니다.

투표소에선 지자체장과 교육감 투표용지가 유권자에게 동시에 지급되는데 4백여 표의 행방이 사라진 상황.

KBS 취재 결과, 경기도 광주 초월읍의 투표수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투표지를 분류하는 곳에서 개표 사무원이 초월읍 9 투표소 개표 결과를 2 투표소로 잘못 입력해 9 투표소의 결과만 2번 입력된 겁니다.

광주시 초월읍 2 투표소에서 투표한 1,700여 명의 표심은 그대로 증발했습니다.

심지어 후보자 순서를 착각해 득표수를 잘못 입력하기도 했습니다.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제3투표소에서 임태희 337표, 안민석 368표로 공표했지만 실제로는 반대였습니다.

개표 보고 시스템에서 후보자 순서를 잘못 입력해 득표수가 뒤바뀐 겁니다.

경기도선관위는 개표 과정에 오류가 생겼다며 유권자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전북교육감 선거에서 드러난 주먹구구식 개표가 경기 교육감 선거에서도 다시 확인되면서 개표에 대한 신뢰성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핵심: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한 지역의 개표 결과를 누락하거나, 각 후보자의 표를 바꿔 입력한 사례가 드러났다.**

## (2)기사/뉴스요약

### '캡틴' 손흥민, 4번째 월드컵에 인생을 건다

[앵커]

한국은 내일(12일) 오전 체코와 운명의 1차전을 치룹니다.

주장 손흥민은 매 경기 인생을 걸겠다는 각오와 함께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박선우 기잡니다.

[리포트]

대표팀 주장 손흥민은 월드컵이 낳은 눈물과 감동, 환희의 명장면마다 늘 중심에 있었습니다.

벌써 네 번째 월드컵이지만 여전히 자신에겐 꿈의 무대라며 인생을 걸겠다는 결연한 각오를 드러냈습니다.

[손흥민/축구대표팀 주장 : "저는 당장 내일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서 오늘이 저한테는 가장 중요합니다. 매 경기 매 경기 정말 인생을 걸 정도로 중요한 경기들입니다."]

멕시코에서 '손날두'라 불린다는 질문에 미소를 짓기도 한 손흥민은 마지막 월드컵이라고 단정 지은 적은 없으며 선수들의 노력이 꽃 피울 자격이 충분하다는 말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손흥민/축구대표팀 주장 : "선수들을 진정시켜야 할 때가 있을 정도로 정말 열정적으로 잘 준비했기 때문에 준비한 거에 꼭 꽃이 피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결전의 날을 앞둔 마지막 훈련에서 '4분 연설'로 선수들에게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베스트 11'을 확정했다며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 충실히 준비했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홍명보/축구대표팀 감독 : "지난 2014년 대회에 참가해서 실패했지만, 그동안의 많은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번 월드컵을 잘 준비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팀은 한국 축구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질 약속의 땅에서 킥오프 휘슬이 울릴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핵심: 한국은 12일 오전 체코와 1차전을 치른다. 주장 손흥민의 매 경기 인생을 걸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 ●일일키워드

순번	키워드	설명	출처
1	하이록스	총 8km를 달리면서 8개의 고강도 근력 운동을 번갈아 수행하는 실내 피트니스 종목으로 지구력을 비롯해 근력, 순발력, 심폐지구력, 정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인터벌 방식의 복합 경기	시사상식 사전
2	플라밍고 시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만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말바니아의 무인도 사잔섬과 인근 즈베르네츠 해안가에 설립하려는 16억 달러 규모의 초호화 리조트 개발사업에 반발하며 2026년 6월 1일부터 일어난 시위를 말한다.	시사상식 사전

●일일스터디\_표준안

윤선민 / 중앙일보 / 2026.06.12.

순번	기사 제목/뉴스 헤드라인	분야	비고
1	"멀쩡해 보였는데"...'오현규 결승골'이 더 놀라웠던 이유	세계	-
2	재활용품 분류하다 시신 다리 특..."당일 차량들 찾았다"	사회	-

(1)기사/뉴스요약

"멀쩡해 보였는데"...'오현규 결승골'이 더 놀라웠던 이유

<앵커>

결승골의 주인공 오현규 선수는 경기 전 38도까지 오른 고열을 이겨내고 극적인 한 방을 터뜨렸습니다. 4년 전 카타르 월드컵 때는 등번호도 없는 예비 선수였다가 이후 꾸준히 성장해 이번에는 대표팀의 핵심 전력으로 거듭났습니다.

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를 앞두고 갑작스러운 고열로 출전조차 장담할 수 없었던 오현규는,

후반 24분 교체로 투입되자 모든 걸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11분 만에 극적인 한 방을 터뜨렸습니다.

백승호의 롱패스를 받은 황인범이 크로스를 올리자, 힘차게 쇄도하며 논스톱 왼발 슈트로 연결했고 골키퍼에 맞고 굴절된 공은 역전골이 됐습니다.

월드컵 데뷔전 첫 슈팅을 결승골로 완성한 오현규는 감격의 세리머니를 펼치며 동료들과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4년 전 등번호조차 없는 예비 선수였던 오현규는, 이후 유럽 무대에 진출하며 폭풍 성장해 등번호 18번을 달고 당당히 월드컵 무대를 밟았고, 급작스러운 컨디션 난조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자신의 꿈을 이뤄냈습니다.

대표팀의 핵심 전력임을 스스로 증명한 오현규는 이제 다음 경기 멕시코전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핵심: 결승골의 주인공 오현규 선수가 경기 전 38도까지 오른 고열을 이겨내고 극적인 한 방을 터뜨렸다.**

## (2)기사/뉴스요약

### 재활용품 분류하다 시신 다리 특... "당일 차량들 찾았다"

<앵커>

인천의 한 재활용센터에서 사람의 다리 일부가 발견돼 경찰이 신원 확인에 나섰습니다. 피해자가 어린 학생일 가능성이 제기돼 인천 지역 학교들은 장기 결석한 학생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규리 기자입니다.

<기자>

그제(10일) 오후 인천 연수구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사람의 다리로 의심되는 물체가 발견됐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수거해 온 재활용품을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 분류하는 과정에서 봉대에 감겨 있는 다리가 발견된 겁니다.

발 크기는 210mm가량으로 혈흔도 있었고, 다리의 무릎 바로 밑 부분부터 발뒤꿈치까지 길이는 약 41cm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관계자 : 40cm 정도. 당시에 저희가 측정하거나 그러진 않고 육안으로 보기에 아주 크진 않았습니니다.]

국과수 감식 결과 사람의 신체 일부로 확인됐지만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는 구두 소견이 전달됐고, 경찰은 즉각 60여 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려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자원회수센터는 인천 연수구와 중구의 주택가나 상가 밀집 지역에서 수거된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인천환경공단 관계자 : 정확한 건 아닌데 당일 거 저희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온 걸로.]

경찰은 사건 당일 운행했던 재활용품 수집 차량 30여 대를 특정하고 동선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인천의 전체 초·중·고교에 공문을 보내 장기 결석자를 비롯해 최근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생 명단을 요청했습니다.

다리의 크기로 미뤄 어린이거나 여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장기 결석 학생이 있긴 하지만 소재 파악이 되는 상황"이라며 아직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인천의 한 재활용센터에서 사람의 다리 일부가 발견됐다. 국과수 감식 결과 사람의 신체 일부로 확인됐지만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는 소견이 전달됐다.**

● 일일키워드

순번	키워드	설명	출처
1	6월 항쟁	1979년 12·12사태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군사정권의 장기집권을 저지하기 위해 일어난 범국민적 민주화운동이다. 1987년 1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하고 그해 5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에 의해 이 사건이 은폐·축소된 것이 밝혀지게 되었다. 이에 시위가 확산되는 가운데 6월 9일 연세대생이었던 이한열 군이 시위 과정의 부상으로 사경을 헤매게 되면서, 이전까지 산발적으로 전개되던 민주화 투쟁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시사상식 사전
2	토렌트	인터넷 곳곳에 있는 파일을 찾아내 내려받을 수 있게 한 프로그램이다. 한 명의 상대방에게서 자료를 전송받는 '일대일' 방식의 P2P(Peer to Peer)와는 달리 다수 사용자에게서 조금씩 정보를 나눠 받아 하나로 합치는 '일대다' 방식이 특징이다.	시사상식 사전